

# 2022년 나눔과섬김의교회 설 예배모범

🕯 **예배초대** 설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각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 **찬 송** 570장

🕯 **기 도**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가족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올 한해 모든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 경** 창세기 35:16~20 (구약 53쪽)

🕯 **설 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벰엘로 돌아온 후 있었던 일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보복이 두려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벰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반드시 야곱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큰 가족과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벰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부릅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야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할 때는 홀몸이었지만 이제는 네 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또한 그때는 아무 것도 갖지 못한 빈손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의 걱정과는 달리 형 에서로부터도 아무런 위협 없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벰엘에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도중에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난산이었고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라헬이 죽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죽어가며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의역하면 소중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라헬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라고 붙인 것은 아내를 잃은 고통보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야곱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원래 이처럼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많았으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게다가 소심하기까지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좀처럼 고향으로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벰엘에 오기 직전에 브니엘에서 겪은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다리 관절이 골절되는 증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울면서 복을 빌었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며 축복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인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 간교,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자신의 머리카락 두 다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야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슬픔보다 아들을 주신 기쁨과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야곱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단순하지 않아서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사건 속에서도 라헬의 죽음과 같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요소와, 베냐민의 탄생과 같은 기쁘고 즐거운 요소가 공존합니다. 어떤 일은 정말 좋은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실망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원치 않는 일을 겪어 낙심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된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도망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이듯, 라헬의 죽음은 슬프지만 베냐민의 출생은 소망이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옛 사람 야곱이 ‘베노니’로 받아들였을 일을 거듭난 이스라엘은 ‘베냐민’으로 받아들이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사건 속에서도 불행과 절망보다는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베노니’라고 부르고 싶은 일들도 ‘베냐민’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 도**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을 보배로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찬 송** 436장

🕯 **주기도** 다같이